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호 [부제 제25529호] 주제 106(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사설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초금당조직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의

업을 높이 달고 천만군민이 필승의 신심과 봉파에 넘쳐 새해의 행군길에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2016년의 장엄한 령동에서 비상히 양양한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충족발시키며 승리를 확정시켜온 초금당조직들이 지난해의 현혹적인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끝없이 힘들고 끈기로 전진하는 우리 당의 전민총돌격전은 초금당조직들이 당을 위하여 멀사복무하는 혁명적

임무로 전개되는 우리 당의 혁명적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초금당을 강화하여야 당시로선 과정력을 살피면서 관찰할수 있고 당시로선 조건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의 조선과 정책은 초금당을 기

본점주단위로 하여 전개되어 당시정책

의 운명은 중요하게 초금당의 역할에 달려있다. 초금당은 본점에 비유되며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 데 전민총돌격전의 승리를 위한 근본방향과 있다.

지난해 12월에 전쟁원제 1차 전쟁원제를 통한 청진과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 데 전민총돌격전의 승리를 위한 근본

방향과 있다.

초금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 것은 우리의 자강력을 최대로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2016년은 우리 조국사에 특

기 할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지난해

에 충청의 7·01전투와 20·01전투

등의 빛내어나가며 주체조선의 생생이며

의 원동력인 일상단계를 천백배로 대

져나가기 위한 결정적 돌보이이다.

일상단계는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일상단계를 통해 우리 당의 혁명학학이며

우리 사회주의의 공화기력의

위력을 일상단계에 있다. 병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

죽 말하면 최우중대와 같다. 초금당의 전투력이 우리 당의 전투력이다.

초금당조직들은 본점에 전개되는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드는 길에 바쳐진 값높은 삶

천지개벽의 노래 놀이 윤리는 사회주의 대지는 무엇으로 하여 더미 속 아름다운가.

지난해에 총성의 2000일정률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우리 겁을 떠난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면 정치부장이었던 정상우동부의 고귀한 생이 이 물음에 대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逝하시였다.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계이나 명예위호가 아니라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조국의 한치땅을 위해 자기의 피와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온 사람들의 영웅이리로운 오늘날에는 선열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웅이리로운 오늘날에는 선열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제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 *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1년은 정상우동부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세계적인 뜻깊은 한해였다.

그해 5월과 7월 선군혁명 명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황해남도의 토지정리현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드넓은 대지를 험준히 바라보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시며 정성껏 꾀하였다. 그때 돌격대원들은 모두가 영웅들이고 참다운 애국자, 천정한 혁명가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 주시었던 것이다.

온탕장을 이루지 못하고 드넓은 땅을 오에도 거내는 그의 마음속에는 한동을 꽂고리 초보체험 데워서라도 대단히 만족해 하시며 정성껏 꾀하였다. 그때 돌격대원들은 모두가 영웅들이고 참다운 애국자, 천정한 혁명가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 주시었던 것이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선찰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말기하던 만년대계의 애국워업을 받아들이는 우리 돌격대원들의 충정의 마음에는 단 100m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지난 17년간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련 정치부장으로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대지연개조구상을 달아나갈 때마다 손수 헌신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생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그해 6월 풍경에도 그때 드넓은 땅에 거내는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꾀하였다. 돌격대원들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기금이었던 그는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입을 먹으며 한치의 간적도 없이 지내면서 상을 받아들이나 갈생세를 응용처럼 끌어번졌다.

조국의 대지에 나의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라!

바로 이런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그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지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높은 삶의 자족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스민 그 땅에 자기의 힘과 열정을 꽂고 더 바쳐가며 행복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우리 당에 따라온 사상과 신념의 강자이며 애국자이다.

정상우동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었다.

